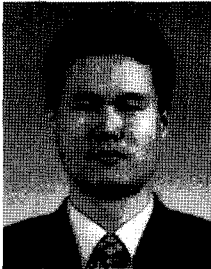


축구



글 | 金炯俊
(Kim, Hyong Jun)

· 산업기계설비/차량기술사
· 동아진흥ENC 대표

E-mail: kimhj@dong-ah.co.kr



▲ 한일기술사 축구단 단체사진

10월 16일 축구단은 공항에 도착한 후에 별도로 마련된 버스를 타고 축구장으로 이동을 했다. 최초 일정상의 축구장은 신모지구기장이었는데, 변경이 되어 혼조구기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필자는 축구장에 도착하여 30분정도 몸을 풀었다. 경기 전 양국 귀빈들의 개회사 및 축사가 이어졌다. 일본은 작년부터 한일 기술사 축구 경기의 승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이번만큼은 반드시 이기겠다고 다카하시 오사무 회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였다. 행사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양국 기술사 회장님들의 시축식이다. 한국기술사회 한영성 회장님의 시축은 강력했

고 파이팅이 넘쳤다.

게임은 20분씩 총 4게임으로 첫째, 셋째게임은 본게임이고, 둘째, 넷째는 친선게임으로 정하고 주심의 시작휘슬이 울렸다. 첫 번 게임 명단은 홍홍표, 박영환, 최원덕, 서영민, 박봉수, 박희문, 이현동, 서수상, 강영승, 이명규기술사와 필자로 구성되었다. 첫 게임은 몸이 풀리지 않아 항상 힘이 든다. 한일 양 팀의 다른 점은 일본팀은 일찍부터 와서 몸을 풀고 있었다는 점이다. 작년에 못 보았던 젊은 선수들이 여럿 보인다. 상호간 팽팽한 승부 속에 무승부로 끝이 났다. 서수상 기술사의 파이팅이 있었으나, 박봉수 기술사의 공격감각이 살아나지 않은 듯했다. 둘째 게임은 친선경기라고는 하지만 역시 양보할 수 없는 승부였다. 홍재운, 조만희, 김성훈, 이상원, 오대영기술사님이 교체되어 뛰었고 우리 쪽에 수 차례 득점의 기회가 있었으나 골로 연결되지 않았다. 역시 무승부로 끝났고, 우리 측의 골키퍼 서영민기술사도 잘하지만 일본 측의 아마나까 골키퍼도 선방했다. 셋째 게임에서 승부는 결정되었다. 왼쪽 코너



▲한일기술사 축구 시축식

킵이 넘어왔고 일본 측 선수가 뛰어 들어오면서 논스톱으로 성공시켰다. 남아공 월드컵에서 수비수 이정수가 넣었던 것과 유사한 골이 터졌다. 우리가 봐도 멋진 골이었고, 일본 측 응원단은 기쁨의 함성을 보냈다. 경기 전체적으로 우리 쪽에서 일본을 밀어붙이며 우세한 경기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골을 넣지 못하고 패하고 말았다. 박봉수기술사의 여러 번 찬스 중에 1골이라도 터졌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며, 일본팀의 승리에 박수 보냈다. 하지만 내년 대구 대회에선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축구단 모두 다짐을 했다. 넷째 게임은 시간관계상 취소되었고, 호텔로 이동하여 여장을 풀고, 회식장소인 카이쿄멧세에 도착했다. 이미 많은 인원이 연회를 즐기고 있었고, 가족과 함께 온 박희문, 이현동, 이명규, 김성훈 기술사는 열근하게 취해있었다. 양국 축구단 상호간에 많은 대화가 오고가며 서로를 마음으로 이해하고 우정을 쌓는 시간이 되었다. 음식도 한국의 뷔페식에서 볼 수 있는 음식들로 먹고 즐기기에 부담이 없었으며, 술은 다양하게 공급되었다. 일본식 소주와 사케, 한국에서도 유명한 일본맥주 등이 제공되어 즐거움을 더했고, 거기에 한국에서 사가지고 온 한국 대표소주 참이슬이 등장했다. 역시 한국소주가 일본소주보다 간이 잘 되어 우리 입맛에 잘 맞았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담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9시 30분이 되었고, 아쉬움을 뒤로하고 숙소로 각자 이동하여 취침을 했다. 물론 아쉬움에 잠 못 이룬 싱글 분들은 따로 숙소에 모여 숨겨둔 소주로 2차를 조출하게 즐기며 새벽까지 뒷풀이를 이어갔다.



▲한일축구단시상식(10월 17일 만찬회장)

다음날 심포지엄이 끝나고 이어진 한일 만찬에서 축구단의 시상도 이어졌는데 한국은 팀의 분위기를 활력 있게 이끌어주신 홍재운 기술사의 감투상과 득점의 기회를 놓쳤으나 끝까지 열심히 뛰해주신 오대영기술사가 MVP를 받았다. 축구단 모두가 MVP라고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만찬을 9시쯤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축구단의 홍홍표, 서수상, 서영민, 강영승, 홍재운, 조만희기술사 등과 함께 호텔 주차장에 모여 앉아 맥주와 함께 12시까지의 뒷풀이와 함께 일본 둘째날은 마무리 되어가고 있었다.

이번 심포지엄을 준비해주신 한국기술사회 한영성 회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축구단 유해출 단장님이하 운영진 여러분께 이 글을 통해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원고접수일 2010년 10월 25일)